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의 운동주 연구현황 일고*

남 송 우**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2000년대 이후의 연구현황 |
| II. 2000년대 이전의 연구현황 | IV. 꼬리말 |

국문초록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는 운동주 시인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기에 한국문학사 속에서의 운동주 연구와 비교하면, 연구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의 운동주 연구는 역사전기적 연구방법론에서 출발하여 구조주의적 방법론으로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운동주 시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을 분석하는 시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형식주의적 연구방법론으로의 접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운동주 시인이 근원적으로 이민자의 삶을 살았기에 디아스포라적인 입장에서 운동주 시인의 삶의

* 이 논문은 2010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 지원(C-D-2010-0355)으로 수행된 연구임

** 부경대학교 교수

정신을 시를 통해 해명해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운동주의 시와 삶을 정확하게 재구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현지에서 정확하게 고증해서 정리해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즉 한국의 운동주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운동주의 삶과 관련된 현장 연구는 중국조선족 문학연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증작업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운동주, 중국조선족 문학사, 역사전기적 연구, 형식주의, 구조주의, 디아스포라

I. 머리말

현재 중국조선족 문학사에서 운동주 시인은 가장 자랑스런 민족시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 운동주 시인은 묻혀진 존재였다. 1985년 일본인 운동주 연구자인 오오무라 마사오가 운동주의 자취를 찾기 위해 연변을 방문하기까지 중국조선족은 운동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가 1985년 5월 14일 룡정중학교를 방문하여 운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선물하고 난 뒤부터 운동주의 붉은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다. 이후 운동주를 추모하는 기념활동들이 일어났고, 1988년 12월 1일에는 운동주문학사상연구회가 설립되었다. 이후로 운동주 시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져왔다.

그런데 중국조선족문학 연구에서 운동주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지만, 국내의 운동주 연구와 비교해보면, 그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구의 연륜도 짧고 연구자도 많지 않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그러나 중국조선족문학

사에서 운동주는 그 출생지가 중국이란 점에서, 연구의 내용이 국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조선족문학사 속에서 운동주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조선족 문학사 속에서의 운동주 연구에 대한 점검은 앞으로 운동주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중·일 삼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주 연구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데도 필요한 사항이다¹⁾.

이에 본고에서는 근래에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에서 발간한 『운동주 문학론』을 중심으로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의 운동주 연구의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 저술에는 1980년대 말에서부터 2012년까지에 씌어진 논문과 평론 중에서 대표적인 논의들²⁾을 선정하여 처음으로 종합 논문집으로 펴내었기 때문에 논의를 위한 텍스트로서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다. 운동주론을 살피는 과정은 편의상 2000년대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00년대를 전후해서 운동주 연구가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심화·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동주 연구 현황에 대한 검토는 운동주 시인에 대한 작가론이나 작품론이 어떠한 방법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

1) 한국은 말 할 필요가 없지만, 일본에서의 운동주 연구도 상당한 수준으로 결과물들을 내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운동주 연구가로는 오오무라 마스오, 일본인들에게 대중화 시키는데 역할을 한 이바라키 노리코,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학위 논문으로 『운동주 연구 : 무의식의 전개과정과 작품세계』를 쓴 구마키 쓰도무, 최초로 일본어로 운동주 시집을 번역한 이부키 고 등을 들 수 있다. 김응교, 『일본에서의 운동주 인식』(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2), 2009), 장사선, 『일본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한국현대문학 연구 30, 2010) 참조

2) 이 책에는 24편의 운동주론이 실려 있으며, 편자는 책 서문에서 1980년대 말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씌어진 논문, 평론 및 유관 자료 중의 대표적인 것들을 선정하여 처음으로 종합논문집으로 펴낸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논문형식을 띤 글들은 없고, 주로 논평형태의 평론에 해당하는 글들이다. 『운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현황에 대한 검토는 연구사적 접근이며, 연구사적 검토는 어떠한 연구 방법론으로 시인의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이다.

II. 2000년대 이전의 연구 현황

중국조선족 문학사에서 운동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5년 《문학과 예술》 제6호에 운동주 시 10수와 함께 박동철 선생의 「고귀한 령혼을 부르며」라는 글을 통해 시작되었다. <시인 운동주의 묘지 앞에서>란 부제를 달아 발표한 이 글은 중국조선족 문단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운동주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으며, 세찬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격정으로 시인과 시작품에 찬사를 보낸 글이었다³⁾ 이후에 여러 논의들이 이어졌다. 김경훈의 「외롭게 대화하는 자-운동주에 대한 평론」, 박충록의 「운동주의 시세계」, 임윤덕의 「저항시인 운동주」, 립연의 「서서히 빛을 휘뿌리는 혜성」, 정관룡의 「중국조선족과 시인 운동주」, 임윤덕의 「운동주 시의 심미적 가치에 대하여」, 리해산의 「운동주 시와 현대파시의 내재적 관련성」등이 2000년대 이전에 발표된 운동주 시인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 논의 중에서 의미있는 몇 편의 운동주론을 검토해봄으로써 2000년대 이전의 운동주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운동주론으로서 연변조선족 비평계에서 첫 번째 글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주론이 김경훈의 「외롭게 대화하는 자-운동주에 대한 평론」이다. 그래서 먼저 이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운동주 연구의 현황을 살핀다. 김경훈은 이 글에서 운동주에 대한 평론을 시작하게 된 동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 그 당시 연변조선족 비평계에서의 운동주 연

3) 립연, 「서서히 빛을 휘뿌리는 혜성」, 『운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68쪽

구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운동주는 조선 현대문학에서 날로 사적지위가 높아가는 시인으로서 국외에서 파악되고있거나와 우리 조선족혁명투쟁사에서 비롯되어 문학적으로도 새롭게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운동주와 그의 시에 대하여 중국의 조선족 특히는 문인들마저 아직 별반 모르고 있는 형편에서 일부 소개되고있는 그의 몇 편의 작품들조차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하여 시인의 진실하고 참된 기품과 시풍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의 시를 언급한 글이 우리에게 거의 없다 싶어 되어있고 외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있기는 하나 여직 ‘저항시인’이란 시인의 기품적측면에서 많이 논의되고있음을 가늠해보면서 우선 시인의 전반 작품을 넘두에 둔 작가론적인 견지에서 우리 조선족비평계에서 첫 번째로 되는 글로 되기를 감히 시도하고(그러나 첫 번째라는 그 자체의 의의만으로는 매우 많은 허점을 내포하기 쉬우므로)다음 그의 시의 외부, 내부의 구조미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작품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해부, 분석하려는데 본문의 저의를 두었다. 이는 조선족문학사의 비교적 중요한 한단계(지난 세기 40년대 좌우)의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시인소재 지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학적(비평적)시각을 외부에 선보이는 자리로도 될 것이다⁴⁾.(중국조선족연구자들이 사용한 정서법을 그대로 따랐기에 표기나 띄어쓰기가 다름을 밝힘/이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임 - 필자주)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중국조선족 문학사에서 운동주 연구가 얼마나 뒤늦게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뒤늦게 시작된 첫 논의치고는 상당히 운동주 시 자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보통 시인 연구에서 초기에 적용하는 역사전기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 시의 구조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작품이 지닌 정신세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김경훈, 『외롭게 대화하는자 -운동주에 대한 평론』, 『운동주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pp,1-2

즉 시가 내보는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주 시의 의식구조를 해명해 보려는 구조주의적 접근 방법, 나아가 심리주의적 방법론이 동원되고 있다⁵⁾.

김경훈이 파악하고 있는 대립적 구조는 먼저 호응의 구조와 대립적 구조이다. 운동주 시인은 그의 최초의 작품인 『초한대』에서 시인의 감정을 초 한대에 그대로 자유롭게 노출시키는 호응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외면과 내면의 호응 구조는 『비둘기』, 『황혼』으로 이어지고 있다⁶⁾고 분석한다. 『비둘기』는 『초한대』가 지닌 단순성을 벗어나 자연과 화자의 삶에서 그 어떤 동질성을 발견하고 여기서 산출되는 심리적 부응을 자연을 통해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황혼』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연을 통해 인생현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현실에서 화자의 그 어떤 심상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물을 찾고 거기에 의탁하여 심리대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운동주가 노래하고 있는 3편의 시를 두고 이러한 층위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초한대』, 『비둘기』, 『황혼』은 각각 다른 시적 대상이기는 하지만, 시인의 감정을 의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적 대상에 대한 시인의 심리적 대응을 대립적 구조로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시 작품 자체가 지닌 형식 안에서의 대립적 구조 파악이 아니고,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시인과의 대립적 관계설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립적 구조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김경훈은 운동주 시에서

5) 한국의 경우 운동주 연구사를 개관해보면, 운동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에는 주로 역사전기적 비평방법론에 의한 연구로 출발해서 심리주의 방법, 다음으로 형식주의적 연구방법과 함께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남송우, 『운동주 시인의 시와 삶 엿보기』, 부경대학출판부, 2007, 12쪽

6) 김경훈, 위의 글, 3-4쪽

많은 비중을 점하는 갈등의 마당으로서의 현실해부의 주제는 대부분 외형구조상 2행 1련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시각상 2분법적 통일체의 모습을 안겨줄 뿐 아니라 한련을 이루는 두 행에 대립적요소를 이루는 시적대상이 등장함으로써 이항대립적 내부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모습을 초기시 『꿈은 깨어지고』에서와 성숙기의 작품에 이르는 『간』에서 분석하고 있다⁷⁾. 『꿈은 깨어지고』에서 나타나는 시적언표 중 <(눈)뜨임:유무>, <종달이:도망>, <봄타령:아님(不在)>, <대리석탑:폭풍> 등을 대립적 요소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항의 설정이 이 시의 구조적 대립에 적절한지는 또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대립항의 설정이 시 전체의 구조로 볼 때, 너무 작의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항의 분석은 『간』에서도 마찬가지다. <살찐(너):여윌(나)>이나 <거북:토끼>의 설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해빛:(습한)간>, <기르던)독수리:먹어라(권유)> 등의 대립항 설정은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시의 형식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대립적 구조를 넘어 다음 단계에서는 <정신사적 의미에서의 동과 정>이라는 대립적 요소를 논하고 있다. 운동주는 어두운 당시 시대상을 동적으로 파악하고 흐름없이 멈춰선 자아의 상상세계 안에 정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김경훈은 『서시』, 『흐르는 거리』, 『사랑스런 추억』에 나타나는 <바람>, <안개>, <기차> 등 움직이는 동적인 요소들은 당시의 암흑상이며 그것에 대립해있는 화자가 상상세계에서나마 해탈을 꿈꾸는 비운의 민족 대변자로 자리하고 있다⁹⁾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에 나타난 동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의 대립항의 구조적 파악은 구조주의적인 방법의 원용이기는 하지만, 동적인 요소들을 바로 그 당시의 암흑상으로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바람, 안개, 기차란 시어를 시 전체의 문맥상 바로

7) 김경훈, 위의 글, 5쪽

8) 김경훈, 위의 글, 7쪽

9) 김경훈, 위의 글, 9쪽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주 시의 의식구조>에서는 <여기-저기>와 <아래-위>라는 대립항을 내세워 운동주 시에 나타난 의식구조를 분석하고 있는데, 논의의 대상이 된 『소년』이란 작품이 이를 제대로 해명해 줄 수 있는 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주 시인의 시작품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려고 한 의도는 엇볼 수 있는 평론이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구조주의적 접근은 국내에서의 구조주의적 방법론으로 운동주 시를 분석한 내용과 비교하면¹⁰⁾ 그 논의의 섬세성이나 논리성에서 많은 거리를 느끼게 된다.

다음의 운동주론은 박충록의 『운동주의 시세계』이다. 박충록은 운동주의 시가 독자들의 심금을 휘여잡고 놓치 않는 까닭은 그의 시가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¹¹⁾, 그의 예술적 특성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첫째는 운동주 시인이 천체미학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조선인민과 조국에 결부시켜 노래한 것이 예술적 특색이라고 지적한다. 운동주 시인은 별에 대하여 유별난 애착을 품고 광명을 주는 별을 동경했고 별을 시의 원천으로 여기었고 별과 운명을 같이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의 별에 비유하고 희망과 광명의 세계를 거기에서 발견한 것으로 본다¹²⁾. 이러한 운동주 시에 대한 특징의 분석은 운동주의 시편에는 별의 이미지가 널리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운동주 시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는 성경이야기와 기독교적 술어를 자기시에 도입하여 민족을 위

10) 국내에서 이 시기 전후해서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해서 발표된 대표적인 논문들은 이사라의 『운동주 시의 기호론적 연구』(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7), 이사라의 『운동주 시의 기호론적 연구 : -이항대립에 있어서의 매개 기능을 중심으로』(문학과 비평5, 1988), 김창완의 『이육사와 운동주 시의 대위적 구조연구』(한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8), 강연호의 『이육사 운동주 시의 구조연구』(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9) 등이 있다.

11) 박충록, 『운동주의 시세계』, 『운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22쪽

12) 박충록, 위의 글, 23쪽

한 순절과 민족과 조국을 노래하는데 적절하게 쓴 점을 지적하며, 세 번째는 조선의 고전소설과 서양의 신화전설을 자기 시에 교묘하게 도입하여 형상성을 높인 점을 예술적 특색으로 지적하고 있다¹³⁾. 즉 『십자가』나 『팔복』등에 나타나는 성경의 인용은 종교적 색채를 엿보게 하나 그 내면의 사상은 민족을 위해 순절하려는 애국사상이 시의 밑바닥에 맥맥히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이란 작품은 희랍의 신화인 프로메테우스와 조선의 <토끼전>을 잘 배합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란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에서 대조적인 긍정적 형상과 부정적 형상을 숨겨있게 창조한 점, 다섯 번째는 은유적 시적 표현을 사용한 점, 여섯 번째는 다양한 표현수법을 써서 시의 형상성을 높이고 있는 점을 운동주의 시에 나타나는 예술적 특색으로 지적하고 있다¹⁴⁾. 운동주는 그의 시에서 대조적 형상과 상징적 수법, 비유법, 의인화의 수법 등을 활용하여 세련되고 음률이 아름다운 시들을 창작함으로써 중국조선족시문학사를 빛나게 한 시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조선족 시문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찾아보기 힘든 시인이었기에 이러한 평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논의는 별을 중심한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 연구와 신화비평적 요소가 결합된 연구방법으로 이해되는데, 그 논의의 깊이는 국내의 연구와는 역시 일정한 거리가 보인다¹⁵⁾.

다음 임윤덕의 『저항시인 운동주』론을 살펴본다. 임윤덕은 중국조선족 문단에서는 운동주 시인을 일제말기 저항시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운동주 연구자들 중에

13) 박충록, 위의 글, 24쪽

14) 박충록, 위의 글, 26쪽

15) 국내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별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운동주 시의 의미를 추구하는 평론들이 발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진환의 『어둠의 본질과 별의 형이상학, 운동주의 별』(현대시학63, 1974)과 김윤식의 『십자가와 별, 운동주의 경우 : 시와 종교』(현대시학 69, 1974) 등이다.

는 운동주를 저항시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¹⁶⁾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그는 운동주 시인을 저항시인으로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하면서 운동주 시가 지닌 저항적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첫째는 운동주를 일제말 암흑기의 시인이라고 하면서도 그의 시를 다룰 때에는 암흑기의 온갖 시대적 특징을 떠나서 마치도 1920년대 초 리상화의 저항시를 다루듯이 하는데서 운동주 시의 저항성을 보아내기가 힘들다는 점, 둘째는 운동주 시에서 많이 보게 되는 시인의 괴로움, 부끄러움 등 내면의식을 시인의(넓게는 민족의) 순수한 정신적 고뇌와 자기성찰로만 보고 그것이 일제의 파쇼적 탄압이 절정으로 치달던 극한 상황에서 나타난 저항의식의 특수한 표현이 된다는 것을 홀시하고 있다는 점, 세째는 저항성을 가늠하는 기준을 정치적 역사적 성질을 띠어야 한다¹⁷⁾는 점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임윤덕은 운동주의 시와 삶을 함께 통일시켜 이해하는 역사주의 비평방법으로 운동주 시인의 저항성을 해명하고 있다.

그가 파악하고 있는 운동주의 저항성은 우선 일제의 침략으로 하여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자기나라 말까지도 잃게 된 뼈아픈 상실감, 민족의 비극적 삶의 현실, 슬픈 운명을 절실하게 반영한데서 표현되고 있다¹⁸⁾고 보았다. 뼈아픈 민족적 상실감을 나타낸 시들로 「종달새」, 「꿈은 깨어지고」, 「모란봉에서」 등의 시편이며, 비극적 삶의 현실과 슬픈 운명을 반영한 시들로는 「장」, 「유언」, 「곡간」, 「슬픈죽속」, 「오줌싸개 지도」, 「고향집」, 「사과」, 「호주머니」 등을 예거하고 있다. 그리고 시를 쓰던 당

16) 임윤덕은 「저항시인 운동주」론에서 운동주를 저항시인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 있는 한국내의 논의로 김홍규의 「운동주론」, 오세영의 「운동주론의 반성」, 마광수의 「형이상학적 저항의 시인 운동주」 등을 들고 있다.

17) 임윤덕, 「저항시인 운동주」, 『운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31-32쪽 참조

18) 임윤덕, 위의 글, 35쪽

시의 시대상황과 연계해서 이런 시의 내용이 운동주의 반일민족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윤덕이 파악하고 있는 운동주의 저항성은 암흑한 시대적 현실에서 생긴 심각한 정신적고뇌, 죽음의식, 부끄러움 등 내면의식 속에 안받침되어있는 비타협적인 강직한 민족적절개, 지식인으로서의 뼈아픈 자책감과 사명감, 민족을 위한 순절정신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⁹⁾. 정신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는 시편으로 「또다른 고향」, 「간」, 「못자는 밤」, 「바람이 불어」, 「돌아와 보는 밤」 등의 작품을 들고 있으며, 부끄러움의 의식이 드러나는 시편으로 「길」, 「별헤는 밤」, 「서시」, 「참회록」, 「쉽게 씌어진 시」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주 시의 저항성은 일제통치하의 현실을 어둡고 숨막히는 암흑한 세상이라고 본 날카로운 부정적 립장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밝은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불타는 념원을 토로한데서 나타나고 있다²⁰⁾고 보았다. 이런 계열의 시로 「눈 감고 간다」, 「돌아와 보는 밤」, 「쉽게 씌어진 시」, 「흐르는 거리」, 「별헤는 밤」, 「봄」 등의 시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임윤덕은 운동주의 시가 지닌 저항성을 논증함으로써 운동주는 저항시인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서론에서 제기한 한국내 운동주 연구자들이 제기한 운동주 시인은 저항시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국내에서도 운동주 시인의 저항성에 대한 찬반논의들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²¹⁾.

이렇게 운동주 시의 저항성 규명에 관심을 가졌던 임윤덕은 이후에 「운

19) 임윤덕, 위의 글, 44쪽

20) 임윤덕, 위의 글, 52쪽

21) 국내에서 논의된 운동주 시의 저항성에 대한 글들은 이동순의 「일제시대 저항 시가의 정신사적 연구」(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88), 권윤현의 「식민지 시대의 저항시에 나타난 현실인식 : 이상화와 운동주의 시를 중심으로」(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8), 최창렬의 「운동주 시 연구 : 저항의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어문논집 16, 1982) 등이 있다.

동주 시의 심미적가치에 대하여」 다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문학 작품의 심미적 가치는 감성적 구체형상과 형상에 체현된 객관적 의의속성에서 체현된다고 보고, 운동주 시의 심미적 가치를 파악함에 있어서 올바른 연구방법은 작품본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작품이 나온 시대작가의 전기, 세계관과의 불가불리적 관련 속에서 진행하는 비평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²²⁾. 이는 그가 앞서 운동주시의 저항성을 논하면서 가졌던 연구방법론에서 크게 멀지 않은 지점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을 시대와 작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역사전기적 연구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임윤덕이 운동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심미적 가치는 첫째 그의 많은 시들에서 일제침략으로 하여 나라를 잃은 민족의 설움과 괴로운 삶의 현실을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그가 살았던 시대의 본질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옹계 반영하였으며 인민대중의 비극적 정서와 기분을 진실하게 전달하였다는데 있다²³⁾고 보았다.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시편들로 「고향집」, 「양지쪽」, 「닭」, 「꿈은 깨어지고」, 「슬픈죽속」, 「간판없는 거리」, 「아우의 인상화」, 「유언」, 「팔복」, 「장」, 「곡간」등을 들고 있다.

둘째의 심미적 가치는 시대의 암흑을 절감한 지식인의 무서운 정신적 고뇌와 슬픔, 절망 등의 내면의식과 심리갈등을 놀라운 정도로 진실하게 그렸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자아성찰로 도덕적 자아완성을 실현해나가면서 마침내 밝은 세상의 도래를 믿고 민족을 위하여 부끄럼없이 살며 순결하고자 한 정신미를 형상화한데 있다²⁴⁾고 보았다. 이런 가치를 보여주는 시편으로 「돌아와 보는밤」, 「간」, 「또다른 고향」, 「자화상」, 「참회록」, 「십자가」, 「서시」, 「쉽게 씌어진 시」등에 주목하고 있다.

셋째의 가치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을 진지하게 표현하면서 이런 사랑이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에 차넘치며 기필코 화애롭고 평화

22) 임윤덕, 위의 글, 78쪽.

23) 임윤덕, 위의 글, 79쪽.

24) 임윤덕, 위의 글, 82쪽.

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절절한 소망을 표현한 데 있다²⁵⁾고 보았다. 이런 모습을 내보이는 시편들로 「별헤는 밤」, 「쉽게 씌어진 시」, 「간판없는 거리」, 「슬픈 족속」, 「장」, 「유언」, 「사랑의 전당」, 「소년」, 「눈오는 지도」등을 거론하고 있다.

넷째는 훌륭한 시적기교를 써서 시인의 사상감정과 의미내용을 원만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게 한 데 있다²⁶⁾고 보았다. 특히 여러 시편에 나타나는 상징기법, 일상에서 쓰는 알기 쉽고 소박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시어, 상징에 의한 이미지, 비유, 은유에 의한 이미지, 객관적 상관물을 통한 이미지, 원형적 이미지 만들기²⁷⁾ 등을 통한 시적 기교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과 같은 임윤덕의 논의는 앞서 그가 연구한 「저항 시인 윤동주」에 비하면 역사전기적 연구방법론에서 작품 내재적인 분석 쪽으로 많이 나아간 점은 있지만,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그가 서론에서 제시한 문학작품의 심미가치의 방법론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한 결과를 보인다. 그가 서론에서 문학작품의 심미가치는 가치구조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적인 방면 혹은 층위를 갖는다고 밝히고, 그 하나가 대상, 형상의 감성적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감성적 현실 뒤에 숨은 것- 객관적 의의 속성이다 라고 전제를 했다. 그리고 작품의 심미가치는 감성적 구체 형상과 형상에 체현된 객관적 의의속성에서 체현된다는 입장에서 있었다. 그렇다면 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심미가치도 이 두 가치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분석되고 정리되었으면 훨씬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내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윤동주시가 그 동안 저항시인이란 측면과 기독교 정신이 발현된 시인으로만 평가되어온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시인의 온당한 평가는 주제-사상적 측면과 함께 예술적 측면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25) 임윤덕, 위의 글, 88쪽.

26) 임윤덕, 위의 글, 90쪽.

27) 임윤덕, 위의 글, 92쪽.

서 논의를 시작한 평문이 리해산의 「운동주의 시와 현대시파의 내재적 연관성」이다.

리해산은 「운동주의 시와 현대시파의 내재적 연관성」에서 운동주 시인의 예술성 분석을 현대파시와의 관련성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동주 시에 나타난 상징주의와 이미지즘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있다.

먼저 그는 상징주의적 요소가 운동주 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운동주가 심취했던 독서경험을 확인함으로써 서구의 상징주의의 영향의 원천을 살피고 있다. 동생 윤일주의 증언과 운동주 시인이 남긴 유품 중 그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서구의 상징주의 작가들을 예거하고 있다. 운동주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프랑시스 잠, 프랑스 주제 오스트리아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 키에르케골 등의 시, 소설, 문학론, 철학 서적을 읽었다²⁸⁾는 것이다. 이런 외적 영향 요소가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상징주의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첫째는 상징주의는 사실주의와는 달리 사물에 대한 진술로서의 아니라 물상에 대한 상징을 통해 시인의 미묘한 정신세계를 표현할 뿐 아니라 극히 추상적인 개념에도 생동한 물질적 형식을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외부세계에 대한 재현이나 반영을 거부하고 내적인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운동주는 그의 시 「자화상」, 「십자가」, 「또 다른 고향」등에서 내부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는 상징주의의 영향의 결과라²⁹⁾고 보고 있다.

둘째는 상징주의는 낭만주의와 반대로 감정의 직설적인 유론을 배격하고 상징과 암시의 방법을 쓸 것을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후

28) 리해산, 「운동주의 시와 현대파시의 내재적 연관성」, 『운동주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97쪽

29) 리해산, 위의 글, 99쪽.

기상징주의 시인인 엘리어트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한 사상감정의 표현을 주장했는데, 운동주는 많은 시편에서 상징법과 암시법을 사용하여 사상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태초의 아침』, 『슬픈 족속』, 『돌아와 보는 밤』 등의 시에서 운동주는 낭만주의적인 감정의 직설적인 유론을 기피한 상징, 암시 등을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상징주의의 영향을 자신의 시에 용해시켰다³⁰⁾는 것이다.

셋째 상징주의는 실증주의나 자연주의와는 달리 시인의 주관에 의한 인식적 역할과 예술적 상상의 창조적 역할을 중시한다. 즉 개인의 민감성과 상상력에 의한 초자연적인 예술을 창조할 것을 주장하면서 색채의 오묘한 비밀을 똑똑히 보아내고 표현하기 어려운 사물을 그려내려면 상징주의 수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징주의자들은 적절한 상징적 문구를 선택하고 배치하여 사물으로써 정을 유론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운동주 시인의 경우, 자기희생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초 한 대』로써 표현함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희생자의 위대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³¹⁾는 것이다.

넷째 상징주의는 탐미주의와 조형미를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시의 음악성을 강조한다. 그런 시는 정감흐름의 맥락 역시 복잡하고 굴곡적이고 몽롱하며 변화무쌍함에 따라 음악성도 불확실성을 띠는데 알기 쉽게 말하면 확정성 없는 내재적 운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주의 모든 시는 내성적인 시의 내용에 맞는 내재적 운률을 살렸을 뿐 정형적인 음수율을 지키려고 애쓴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³²⁾고 보고 그 전형적인 한 편으로 『종달새』를 들고 있다.

다섯째 상징주의는 신비주의적 색채가 진하다. 말라르메에 이르러 이 이론은 한걸음 더 발전하여 상징주의는 신비성에 의해 구성되며 조금씩 대상을 암시함으로써 심령상태를 표현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상징주

30) 리해산, 위의 글, 100쪽.

31) 리해산, 위의 글, 101쪽.

32) 리해산, 위의 글, 102쪽.

의의 신비주의는 종교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종교에서 상징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운동주 시인의 경우 십자가, 제단, 제물 같은 시어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용어가 특별한 신비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³³⁾ 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운동주 시인은 상징주의적 영향을 논할 수 있지만, 그는 동양인의 사유방식과 리해방식 및 체질에 맞는 내부 지향적인 시 즉 시적 대상을 자신의 정신세계로 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상징주의 시가의 일부 쓸모 있는 기법을 수용하여 자기화한 시라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주의 시적 대응에 대해 리해산은 객관사물에 대한 재현이나 반영 그리고 정감의 직설적인 유로, 시어의 단순한 확실성 등에 의한 예술성결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훌륭한 시도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일방향적인 평가라는 점을 쉽게 간과할 수 있다. 운동주의 시가 서구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동양인의 입장에서 자기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동양적인 상징성이 왜 성공적인지, 그리고 그 상징이 개인상징을 넘어 보편적인 상징으로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한 상술과 시작품에 나타나는 상징들에 대한 분석³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33) 리해산, 위의 글, 103쪽.

34) 리해산, 위의 글, 104쪽.

35) 국내 운동주 연구자들의 운동주 시에 나타나는 상징성의 연구는 단순히 상징주의적 사조의 측면에서의 연구가 아니라, 작품에 나타나는 상징들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운동주 시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마광수의 『운동주 연구 : 그의 시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을 중심으로』(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3), 이진청의 『운동주 시의 상징연구』(인문논총8, 1984), 신진의 『운동주 시의 상징적 모티브 : 하늘, 바람, 별의 의의』(국어국문학6, 1985), 김수복의 『운동주 시의 원형상징 연구(1) : 종교·빛·물의 형상고』(국문학 논집12, 1985), 한명희의 『운동주 시에 나타난 상징과 지향의식』(중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89) 등이 있다. 그리고 박노균의 『1930년대 한국시에 있어서의 서구 상징주의 수용연구』(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2)는 리해산의 운동주 시에 나타나는 서구 상징주의 수용문제를 좀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리해산은 운동주의 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가 서구의 이미지즘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서구 이미지즘 예술적 특징을 몇 가지로 제시한다. 그 첫째가 이미지로 형상을 대신하라는 점, 둘째 시에서 의론을 전개하는 것을 금하라, 셋째 고전시사에서 전고 같은 것을 섭취하여 시의 이미지를 창조할 것 등이다. 그런데 운동주가 어느 이미지즘과 시인의 작품을 애독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지용 같은 시인들의 시를 탐독하면서 이미지 창조의 기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였으리라 판단하고, 운동주 시에 나타난 이미지를 상징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동태적 이미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³⁶⁾ 있다. 비유적 이미지는 「산상」, 「초 한 대」 등의 시에서, 상징적 이미지는 「양지쪽」, 「간」에서, 동태적 이미지는 「달같이」, 「아침」, 「창공」 등에서 분석해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평가는 운동주 시인의 시를 이미지즘으로 간주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시 한 편이 죄다 이미지로 구성된 예는 보기 드물며 어느 시에서나 다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리고 서구의 이미지즘 시인들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교, 새로운 언어, 새로운 절주, 새로운 운률 등을 시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운동주의 시는 이미지즘과도 내재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자체의 시에 이미지 창조의 기법을 흡수시킨 것³⁷⁾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리해산의 분석은 시가 지닌 본래적인 이미지의 요소와 이미지즘 시인들이 주창한 이미지가 어떤 점에서 변별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의라는 점에서 좀더 보완되어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들이 내보이는 운동주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 연구에서³⁸⁾의 분석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36) 리해산, 위의 글, 105쪽.

37) 리해산, 위의 글, 110쪽.

38) 운동주 시를 이미지의 측면에서 연구한 국내 연구논문은 대표적으로 최동호의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물의 심상과 의식의 연구 : 김영랑, 유치환, 운동주의 시

보이고 있다.

Ⅲ. 2000년대 이후의 연구 현황

2000년대 이후로 넘어서면 중국조선족 문단에서도 운동주 시인에 대한 연구가 이전보다는 세분화되고 좀 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운동주 시에 나타나는 특별한 이미지에 집중되는 연구(리함의 『운동주 시의 별세계』, 리광인의 『운동주 시의 여성이미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김경훈의 『운동주 시의 공간의식연구』, 김경훈의 『운동주 시의 시간의식연구』, 이민문화적 성격이나 디아스포라의 입장(장춘식의 『운동주 시의 이민문화적 성격』, 김관웅의 『디아스포라시인 운동주의 시와 북간도』, 김혁의 『디아스포라의 화자 운동주』)에서 논하기 시작한다. 이들 논의 중 리함의 『운동주 시의 별세계』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리함은 아직까지 별의 시인으로서의 운동주와 시인의 별세계를 제대로 다룬 논문이나 평론을 한편도 찾아볼 수 없고,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다. 그의 입장은 별과 별세계에 대한 진지한 이해없이 운동주 시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리함은 운동주 시에 나타난 별의 세계를 몇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우선 운동주 시인이 별에 유별난 애착을 가진 이유는 한 인간의 성장에서 대대로 내려온 집단무의식의 침전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 배달민족의 반만년의 력사 속에 계승된 별에 대한 인식이 운동주 시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³⁹⁾고 본다. 이러한 근원적 바탕 위에서 운동주 시

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김인규의 『운동주 시의 이미지 분석과 시정신 고찰』(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최문자의 『운동주 시에 나타난 <어둠>의 이미지 분석』(성신어문학5, 1992), 이세종의 『운동주 시의 심상연구』(국민대 석사학위 논문, 1994) 등이 있다.

인은 그의 시 「무얼 먹고 사나」, 「별헤는 밤」에서 맑고 청결한 그리고 천진란만한 동심에 함뻍 젖어 있는⁴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 「무서운 시간」, 「달밤」에서는 맑지만 앓은 슬픈 모습을 통해 시대상을 재치있게 다루고 있다⁴¹⁾고 보았다.

그리고 시 「새로운 길」, 「십자가」, 「또 다른 고향」, 「서시」등의 시에 나타나는 별의 이미지는 별에 새 세계, 새 희망을 기탁한⁴²⁾ 시인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리함의 시 해석은 운동주 시에 나타난 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별이 지닌 어둠 속에서만 그 존재가 드러나는 별의 형이상학적 존재성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⁴³⁾.

다음은 리광인의 「운동주 시의 여성이미지」에 대해 살펴본다. 리광인은 운동주 시에는 다양한 여성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아가씨, 언니 등으로 이어지는 여인이미지, 어머니와 같은 누나이미지, 이 세상 어머니이미지, 순이라는 시적화자의 이미지 등⁴⁴⁾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운동주 시에서 여성이미지를 내보이고 있는 시편은 약 30편으로 이런 시편들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운동주 시인의 여성관을 헤아릴 수도 있고, 그의 순결성, 인간성을 헤아릴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먼저 시 「조개껍질」, 「병원」, 「슬픈죽속」등에 나타난 여성이미지를 분석하여 일제통치하의 한 여인만이 아닌 우리 겨레여성 모두를 가리키는 것⁴⁵⁾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다음은 시 「해바라기」, 「사과」, 「비자루」, 「편

39) 리함, 「운동주 시의 별세계」, 『운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115쪽.

40) 리함, 위의 글, 121쪽.

41) 리함, 위의 글, 124쪽.

42) 리함, 위의 글, 129쪽.

43) 이미 박진환은 「어둠의 본질과 별의 형이상학, 운동주의 별」(현대시학63, 1974)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제기한 바가 있다.

44) 리광인, 「운동주 시의 여성이미지」, 『운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262쪽.

지, 『야행』에서 어머니 같은 누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시에 나타나는 누나이미지는 순결로 특징지어지는 동심의 세계에서, 동심이 받들린 민족의 정서 속에서 유기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⁴⁶⁾고 평가한다. 그리고 시 『어머니』, 『밤』, 『해빛 바람』, 『버선 본』, 『비자루』, 『병아리』에서는 가정주부로서의 어머니이미지를 노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오줌싸개 지도』, 『남쪽하늘』, 『고향집』, 『별헤는 밤』 등의 시편에서는 승화된 어머니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⁴⁷⁾고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전당』, 『소년』, 『눈 오는 지도』, 『코스모스』 등의 시에서는 순이라는 시적화자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 순이라는 여성이미지는 사랑을 포상하며, 순이를 사랑이미지로 한 윤동주의 시들은 하나같이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러는데서 보다 큰 감명을 불러일으킨다⁴⁸⁾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이미지의 분석은, 국내 연구⁴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윤동주 시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의 유형화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나, 그 유형별 여성이미지의 여성성에 대한 근원적 논의가 뒤따라줄 필요가 있다.

윤동주 시를 좀 더 작품내재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논의가 김경훈의 『윤동주 시의 공간의식연구』이다. 윤동주 시에 나타나고 있는 공간의식을 통해 그의 작품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학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공간의식 속에는 세계 또는 자연에 대한 시인의 대응적 자세와 화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⁵⁰⁾고 보기 때문이다. 김

45) 리광인, 위의 글, 269쪽.

46) 리광인, 위의 글, 273쪽.

47) 리광인, 위의 글, 276쪽.

48) 리광인, 위의 글, 283쪽.

49) 국내 윤동주 연구에서는 여성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김임구의 『윤동주 시세계의 기본구조 분석 : 여성적 이마고를 중심으로』(인문과학 80집, 1999)가 있다.

50) 김경훈, 『윤동주 시의 공간의식 연구』, 『윤동주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132쪽.

경훈은 이 글에서 수평적 공간과 수직적 공간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먼저 수평적 공간에서는 시 「눈 감고 간다」, 「길」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인 장애나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수평적 공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방’이란 공간은 세속과의 단절을 대가로 우주와의 교호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끝없이 확장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새롭게 띠며 현실적인 기능보다는 의식의 성장이나 정신사적 의미와 관련된 상상력의 부분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이라⁵¹⁾고 해석한다.

다음은 수직적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의식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평적인 공간의 경우와는 달리 시인이나 화자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갖는 어떤 바람이나 희망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황혼」에 나타나는 하늘은 지상과 대조되어 희망과 꿈을 펼쳐줄 수 있는 공간이며, 「서시」에 나타나는 하늘도 결국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신성함과 영원함의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⁵²⁾ 「십자가」에 나타난 침탑은 하늘에 비상하려는 발돋움의 몸짓으로 「자화상」에서 보여준 하늘과 땅을 거꾸로 보여준 우물은 상승적인 미래지향보다는 하강적인 내면의 침잠-과거회귀적인 추구하고 잇닿아 있는 것⁵³⁾으로 본다. 이러한 윤희주 시에 나타난 공간의식의 해석은 공간의 개념을 수평과 수직이란 단순 이분법에 의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양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그 의미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윤희주 시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공간연구는⁵⁴⁾ 정치한 공간이론에 기대어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

51) 김경훈, 위의 글, 137쪽.

52) 김경훈, 위의 글, 141쪽.

53) 김경훈, 위의 글, 143쪽.

54) 윤희주 시를 대상으로 한 국내 공간 연구는 대표적으로 김선학의 「윤희주 시의 공간 수용에 관한 고찰」(동악어문논집 25, 1990), 김선학의 「한국현대시의 시적 공간에 관한 연구」(동국대학 박사학위논문, 1990), 박태일의 「한국근대시의 공간현상학적 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남송우의 「윤희주 시에 나

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훈은 공간에 대한 연구에 이어 「운동주 시의 시간의식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자연의 시간, 우주적 시간, 개인적인 시간 등 세 가지 시간 유형을 통해 이 시간의식 속에 나타난 운동주 시인의 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자연의 시간의식은 시 「봄」, 「겨울」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동시 속에는 사회적인 모순이나 고민이 담겨있지 않은 순수한 무욕의 경지에 있는 인간의 원초적이면서 궁극적인 모습이 드러난다⁵⁵⁾고 본다. 그리고 우주적 시간의식은 시 「태초의 아침」, 「또 태초의 아침」을 통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의식된 종말론적 시간의식을⁵⁶⁾ 분석하고 있다. 또한 화자의 시간에서는 「자화상」, 「길」, 「참회록」등을 통해 변화와 존속성의 시간의식을 내보이고 있다⁵⁷⁾고 해석한다. 이러한 시간의식의 분석은 의미있는 작업이지만, 문제는 이 세 층위의 시간의식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동주 시인의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종합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운동주 시를 시간의식의 차원에서 연구한 논문은⁵⁸⁾ 드물어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공간연구와 상관되어 있으면서, 운동주 시인의 디아스포라적 관점과 연계된 연구가 리미숙의 「운동주 시에 드러난 장소와 장소상실」이다. 리미숙은 그 동안 운동주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디아스포라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장소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

타난 공간인식의 한 양상 : 일본 유학시절의 시를 중심으로」(한국문학 논총 제 40집, 2005), 한원균의 「방, 유펜저구자의식의 공간성」(시와 시학 통권 57호, 2006) 등이 있다.

55) 김경훈, 「운동주 시의 시간의식 연구」, 『운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188쪽.

56) 김경훈, 위의 글, 195쪽.

57) 김경훈, 위의 글, 197쪽.

58) 국내에서 운동주 시를 시간의식 차원에서 연구한 논문은 신춘선의 「운동주 시의 시간의식 연구」(인제대 석사학위 논문, 2004)가 있다.

다고 보고, 이 글에서 운동주 시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 장소와 장소상실이 어떻게 체현되었는가⁵⁹⁾를 ‘고향’이란 장소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우선은 운동주의 시 『고향집-만주에서 부른』, 『오줌싸개 지도』에 나타난 장소는 고향에 대한 장소애를 형성하지 못한 상당히 추상화된 공간인식을 내보인다⁶⁰⁾고 보았다. 그리고 시 『기왓장내외』, 『쉽게 씌어진 시』를 통해서는 고향상실(장소상실)을 초래하는⁶¹⁾, 나아가 실향의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중적 이산의 존재를⁶²⁾ 확인하고 있다. 또한 『또 다른 고향』에서는 상실된 고향에서 이상적 고향찾기를⁶³⁾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산문 『終始』에서는 운동주만의 지향적 공간을 형상화한 또 다른 희망의 고향찾기를⁶⁴⁾ 하고 있다고 보았다. 고향이란 장소성을 중심으로 파악한 이러한 공간적 의미의 추구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분석이다. 그러나 추상화된 고향→상실된 고향→이상적 고향찾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적 전개가 운동주의 디아스포라적 의식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운동주의 삶은 한 곳에 정주된 삶을 살지 못했다⁶⁵⁾. 이런 측면에서 운동주 시에 나타난 이민문학적 성격이나 디아스포라적인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연변조선족 문학연구에서는 운동주의 시를 이런 측면에

59) 리미숙의 『운동주 시에 드러난 장소와 장소상실』, 『운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292쪽.

60) 리미숙, 위의 글, 293쪽.

61) 리미숙, 위의 글, 298쪽.

62) 리미숙, 위의 글, 299쪽.

63) 리미숙, 위의 글, 301쪽.

64) 리미숙, 위의 글, 304쪽.

65) 운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명동에서 출생해서 1931년 명동소학교를 졸업, 1932년 은진중학입학, 1935년 3학년을 마칠 즈음 평양숭실 중학 1년 재학, 1938-1942년 연희전문학교 4년, 1942-1943년 일본 립교대, 동지사대학 영문과, 1943-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 옥사했다. 이런 이력만 보더라도 이민지에서 출생하여 평양과 서울에서 5년, 일본에서 3년을 지냈기에 고국과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모두 8년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민자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송우혜, 『운동주 평전』, 푸른역사, 2004, 참조

서 고찰하는 평문들이 많다. 장춘식의 「운동주 시의 이민문학적 성격」, 김관웅의 「디아스포라시인 운동주의 시와 북간도」 등이 대표적인 평문이다.

먼저 장춘식의 「운동주 시의 이민문학적 성격」을 살펴보면, 장춘식은 이 글에서 운동주 시인이 이민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였느냐를 밝히고 있다⁶⁶⁾. 이런 관점에서 그가 밝힌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시 「고향집-만주에서 부른」에서는 <생존을 위해 이주를 단행하였고, 현재는 이민지에서 또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살려니 과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고국땅의 고향집>을 그리워하고 있다⁶⁷⁾고 보았다. 그리고 시 「오줌싸개 지도」에서도 앞의 시와 같은 맥락에서 만주의 이민문제를 인식하고 있다⁶⁸⁾고 보았다.

둘째는 「슬픈 족속」과 「양지쪽」 두 작품을 통해 이민자의 현재 삶에 대한 관조를 분석하고 있다. 「슬픈 족속」에서는 이국땅에 사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고⁶⁹⁾, 「양지쪽」에서는 중국 땅에 사는 조선이민자임을 전제하여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있다⁷⁰⁾고 해석한다. 즉 두 시편은 이민자의 고달픈 현실의 관조를 통해, 조선인 이주민의 이중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⁷¹⁾고 본다.

셋째는 운동주 시인에게 있어, 향수는 일반적 향수를 초월하여 승화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황혼」에서는 참을 길 없는 향수의 심정을 폭발시킴으로써 이주민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고⁷²⁾, 「별헤는 밤」에서는 현재 몸담고 있는 서울이 모국이고 부조의 고향이지만 그곳을

66) 장춘식, 「운동주 시의 이민문학적 성격」, 『운동주 문학회』, 연변인민출판사, 2013, 148쪽

67) 장춘식, 위의 글, 150쪽.

68) 장춘식, 위의 글, 152쪽.

69) 장춘식, 위의 글, 153쪽.

70) 장춘식, 위의 글, 155쪽.

71) 장춘식, 위의 글, 같은 쪽

72) 장춘식, 위의 글, 157쪽.

고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태어난 중국땅을 고향이라 인식하고 향수의 정서를 드러낸 것 자체를 이민 시인의 이중적 정체성을 보여준 것으로 본다⁷³⁾. 그리고 이국땅 일본에서 느낀 향수는 또 다른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흐르는 거리』, 『사랑스런 추억』, 『쉽게 씌어진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 속에는 향수의 정서에다가 등불을 밝혀 시대의 어둠을 내몰려는 의지와 이상을 담음으로써⁷⁴⁾ 단순한 고향의식을 넘어서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향의식의 해석은 나름의 의미는 가지나 일본에서의 고향의식의 내용을 좀더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고향의식 속에 어둠을 내몰려는 의지와 이상을 담음으로써 단순한 고향의식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향의식이 국내에서 씌어진 고향의식이 드러나는 다른 시편들과 어느 지점에서 변별점을 가지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운동주의 고향의식의 변화와 함께 정신사적 변화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관웅의 『디아스포라시인 운동주의 시와 북간도』를 살핀다. 김관웅은 이 글에서 운동주의 시에 표현된 고향의식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중국조선족의 고향의식을 점검해보고 나아가서 중국조선족이 수립해야 할 바람직한 고향의식을 탐구하고⁷⁵⁾ 있다. 그가 파악하고 있는 고향의식은 우선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으로서의 고향이다. 『별헤는 밤』을 중심으로 파악된 운동주의 고향인 북간도는 시적상상의 원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운동주의 시는 중국조선족문학의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고,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원칙에 입각해보아도 운동주 문학은 중국조선족 문학의 범주에 드는 것⁷⁶⁾으로 평가한다.

73) 장춘식, 위의 글, 159쪽.

74) 장춘식, 위의 글, 162쪽.

75) 김관웅, 『디아스포라시인 운동주의 시와 북간도』, 『운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174쪽.

76) 김관웅, 위의 글, 176쪽.

다음으로 그가 파악하고 있는 고향의식은 상실과 환멸의 공간으로서의 고향이다. 「쉽게 씌어진 시」, 「무서운 시간」, 「길」등을 통해 당시의 엄혹한 사회현실이 반영되어 고향 복간도는 환멸의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⁷⁾고 해석한다. 그래서 「또다른 고향」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고향을 찾아 나서고 있다⁷⁸⁾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고향」에 나타난 이러한 고향상실의 주제와 정서적 원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조선족문학에서 부단히 재현되어 오고 있는 중국조선족 문학의 하나의 중요한 원형이라⁷⁹⁾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와 함께 김관웅은 오늘날 중국조선족이 수립해야 할 바람직한 고향의식을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운동주 시인에 의해 표현된 고향상실의 주제는 이제 중국조선족문학의 영고불변의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중국조선족은 고향을 상실하고 사향가만 부를 수는 없다고 본다. 운동주의 시문학 정신을 계승하면서, 이를 승화시켜나가야 하고 초월해야 한다⁸⁰⁾고 제시한다. 이런 제안은 현실적으로 중국조선족의 터전이 개방이후 많이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면서, 중국조선족문학의 터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이상의 운동주 시를 고향상실과 연관해서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는 글들은 운동주의 출생지가 북만주라는 점에서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관점인 것은 확실하다. 즉 만주에서 바라보는 조선문학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제는 디아스포라적 관점을 넘어 다문화적 상황에서 새로운 문학적 주체성을⁸¹⁾ 세우

77) 김관웅, 위의 글, 177쪽.

78) 김관웅, 위의 글, 181쪽.

79) 김관웅, 위의 글, 182쪽.

80) 김관웅, 위의 글, 184쪽.

81) 이런 관점의 문제제기는 오문석의 「운동주와 다문화적 주체성의 문학」(한국근대문학연구25, 2012)에서 엿보이며, 운동주의 작품을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임현순의 「운동주 시의 디아스포라와 공간」(우리어문연구, 2007), 정우택의 「재만조선인의 혼종적 정체성과 운동주」(어문연구, 2009), 구모룡의 「운

는 차원으로 논의가 진전되어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운동주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글이 리함의 『운동주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이다. 리함은 이 글에서 운동주의 증조할아버지 때 살았던 자동이란 지역명칭, 운동주가 태어난 명동촌의 유래, 운동주가 소학교를 마치고 고등부를 다니던 달라자 학교를 중국인학교로 오해하고 있는 사항 등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해명하고 있다.

1886년에 운동주의 증조부 윤재옥이 가족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 이주한 곳이 오늘의 룡정시 개산툰진 자동촌인데, 자동의 지역명칭에 대해서는 한국학계에서는 단순히 북간도 자동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란 지적이다.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보면, 그곳은 원래 길림 변무독판 녕원보 개운사 자동이라 불려야 하는데, 20세기 이후에 조선 이주민들에 의해 널리 불리워진 북간도란 말을 그대로 통용하고 있어 역사성이 사라졌다⁸²⁾는 것이다.

다음은 명동촌 유래에 대한 역사적 사실 확인이다. 명동이 1899년 김약연일행이 이주한 후에 생겨난 마을이 아니고, 그전부터 실재한 마을이란 점이다. 당시 이 마을은 룡암동으로 불려지고 있었는데, 1909년 4월 명동서숙이 사립명동학교로 개칭되면서 룡암동은 명동촌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가 생기면서 명동촌 또는 학교마을로 불려지기 시작했다⁸³⁾는 지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라자 학교의 성격에 대한 논의이다. 1906년 서전서숙 설립이전만 하더라도 연변의 초등교육형태는 서당교육이었다. 1914년 연변내 연길현 한 개 현만 하더라도 봉건적인 조선족서당이 116개소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서전서숙 설립과 더불어 근대적인 사립학

동주의 시와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성」(현대문학이론연구, 2010) 등이 있다.

82) 리함, 『운동주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운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311쪽.

83) 리함, 위의 글, 317쪽.

교들이 세워지고 1910년 전후부터 민국정부측의 현립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운동주 시인이 다닌 달라자 현립1교가 그 중의 하나라⁸⁴⁾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은 정부측에서 세운 현립학교여서 중국인학교로 보이지만 사실 학생의 대부분은 조선족 학생들이었다는 점이다. 운동주는 1931년 3월 15일 명동소학교를 마치고 달라자의 현립1교 고등부에서 1년간 더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시 『별헤는 밤』에 나오는 패, 경, 옥 등의 이국소녀들을 만난 것⁸⁵⁾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의 확인과 문제제기는 운동주 시인의 시와 삶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문제제기라고 본다. 이는 한국내의 연구자가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현장 확인 작업과 중국조선족 역사의 전반적인 자료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IV. 꼬리말

지금까지 중국조선족 문학사에서의 운동주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는 운동주 시인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기에 한국문학사 속에서의 운동주 연구와 비교하면, 연구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조선족 문학사에서의 운동주 연구는 역사전기적 연구방법론에서 출발하여 구조주의적 방법론으로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운동주 시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을 분석하는 시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형식주의적 연구방법론으로의 접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운동주 시인이 근원적으로

84) 리합, 위의 글, 318쪽.

85) 리합, 위의 글, 321쪽.

이민자의 삶을 살았기에 디아스포라적인 입장에서 운동주 시인의 삶의 정신을 시를 통해 해명해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운동주의 시와 삶을 정확하게 재구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현지에서 정확하게 고증해서 정리해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즉 한국의 운동주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운동주의 삶과 관련된 현장 연구는 중국조선족 문학연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증작업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 운동주 연구는 한국에서의 연구처럼 다양한 방법론을 원용한 깊이있는 개별 작품연구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로 중국조선족 문학연구자들이 한국 내에서의 운동주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보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연호, 『이육사 운동주 시의 구조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구모룡, 『운동주의 시와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성』, 현대문학이론연구, 2010
- 권오만, 『운동주 시 깊이 읽기』, 소명출판사, 2009.
- 권윤현, 『식민지 시대의 저항시에 나타난 현실인식 : 이상화와 운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수복, 『운동주 시의 원형상징 연구(1) : 종교·빛·물의 형상고』, (국문학 논집12, 1985.
- 김윤식, 『십자가와 별, 운동주의 경우 : 시와 종교』, 현대시학 69, 1974.
- 김응교, 『일본에서의 운동주 인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2), 2009.
- 김인규, 『운동주 시의 이미지 분석과 시정신 고찰』,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임구, 『운동주 시세계의 기본구조 분석 : 여성적 이마고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80집, 1999.
- 김창완, 『이육사와 운동주 시의 대위적 구조연구』, 한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8.
- 남송우, 『운동주 시인의 시와 삶 엮보기』, 부경대출판부, 2007. 11-116쪽
- 마광수, 『운동주 연구 : 그의 시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3.
- 박노균, 『1930년대 한국시에 있어서의 서구 상징주의 수용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2.
- 박진환, 『어둠의 본질과 별의 형이상학, 운동주의 별』, 현대시학63, 1974.
- 송우혜, 『운동주 평전』, 푸른역사, 2004, 21-387쪽
- 신진, 『운동주 시의 상징적 모티프 : 하늘, 바람, 별의 의미』, 국어국문학 6, 1985.

- 신춘선, 『운동주 시의 시간의식 연구』, 인제대 석사학위 논문, 2004.
-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운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1-368쪽.
- 오문석, 『운동주와 다문화적 주체성의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25, 2012.
- 오오무라 마스오, 『운동주와 한국문학』, 소명출판사, 2001.
- 이건칭, 『운동주 시의 상징연구』, 인문논총8, 1984.
- 이동순, 『일제시대 저항시가의 정신사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88.
- 이사라, 『운동주 시의 기호론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7.
- _____, 『운동주 시의 기호론적 연구 : -이항대립에 있어서의 매개 기능을 중심으로』, 문학과 비평5, 1988.
- 이세종, 『운동주 시의 심상연구』, 국민대 석사학위 논문, 1994.
- 임현순, 『운동주 시의 상징과 자기의 해석학』, 지식산업사, 2009.
- 임현순, 『운동주 시의 디아스포라와 공간』, 우리어문연구, 2007
- 장사선, 『일본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한국현대문학 연구 30, 2010.
- 정우택, 『재만조선인의 혼종적 정체성과 운동주』, 어문연구, 2009.
- 최동호,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물의 심상과 의식의 연구 : 김영랑, 유치환, 운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 최문자, 『운동주 시에 나타난 <어둠>의 이미지 분석』, 성신어문학5,
1992.
- 최창렬, 『운동주 시 연구 : 저항의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16, 1982.
- 한명희, 『운동주 시에 나타난 상징과 지향의식』, 중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89.

<Abstract>

The current condition of study of Yoon Dong ju in Korean Chinese Literature History

Nam, Song-woo

This i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f study of Yoon Dong ju in Korea Chinese Literature History.

There are quite a difference in quality and quantity of Yoon Dong ju research between Korean Chinese Literature Study and Korean Literature Study as the former started the late 1980s. The difference in Korean Chinese study are there are some studies started from the historical biology study and tried to some structuralism approach while some are found to apply the formalism method to focus on the poem itself as analysing the time and structure shown in the poem. What gets an attention is that there is a point of view to regard him as an immigrant himself so it tries to elucidate his poem in the stance of Korean's diaspora. Also there have been some historical evidence studies of Yoon to help us understand his life and poem in more concrete ways. This is to say, this kind of historical study which surely helps Korean researcher can be done only by Korean Chinese researchers.

It, however, is not in such a phase to study his individual work to be studied in various method like in Korea. This shows that Korean Chinese Literature researchers need to be more receptive for Korean Literature History of Yoon to get deeper and wider understanding of

his poetic world.

Key Words : Yoon Dong ju, History of Korean Chinese Literature,
Historical Biology Study, Formalism, Structuralism.
Diaspora

■ 논문접수 : 2014년 11월 14일

■ 심사완료 : 2014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14년 12월 19일